

- 주요 뉴스: 미국 고용 및 물가지표, 예상치 상회 건축 우려 증가 일부는 경기침체 회피 기대
 - 미국 재무장관, 글로벌 경제 전망은 개선, 적절한 시기에 중국과 경제 대화 재개
 - JPMorgan의 제이미 다이먼, 미국 경기는 연착륙 가능성 있지만 많은 난관 존재
 - 일본은행 총재,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시장에서는 차기 총재의 정책 방향에 관심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금리인상 지속 가능성과 이를 충분히 반영했다는 인식이 상충

주가 상승[+0.5%], 달러화 강보합[+0.01%], 금리 하락[-4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저가매수 유입, 반도체 관련주 강세 등으로 상승 마감
유로 Stoxx600 지수는 에너지 관련주 강세 등으로 0.1%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통화긴축 장기화 전망 등이 반영
유로화가치는 0.1% 하락, 엔화는 0.1% 절상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그 동안의 상승이 과도했다는 평가 등이 배경
독일은 미국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4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296.8원, -0.3원) 0.1% 상승, 한국 CDS 하락

주요지표					주요지표				
		2/23일	2/22일	전일대비			2/23일	2/2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012.3	3,991.1	0.53%	국채금리 10y	미국	3.88%	3.92%	-4bp
	유럽	462.50	462.22	0.06%		독일	2.48%	2.52%	-4bp
	중국	3,287.5	3,291.1	-0.11%		영국	3.59%	3.60%	-1bp
	일본	휴장	27,104	-	CDS 5y	한국	44bp	46bp	-2bp
	한국	2,439.1	2,417.7	0.89%		중국	70bp	72bp	-2bp
환율	달러지수	104.60	104.59	0.01%	위험지표	EMBI+	-	393	-
	유로화	1.0596	1.0605	-0.08%		VIX	21.14	22.29	-5.16%
	엔화	134.70	134.84	0.10%		WTI유	75.39	73.95	1.95%
	위안화	6.9081	6.8929	-0.22%	원자재	구리	405.3	419.1	-3.29%
	원화	1,297.1	1,304.9	0.60%		금	1,822.3	1,825.4	-0.1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고용 및 물가지표, 예상치 상회. 긴축 우려 증가. 일부는 경기침체 회피 기대

- 2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19.2만건으로 전주비 0.3만건 줄었으며,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평균 22만건을 하회. 최근 기술, 금융 부문의 기업들이 해고를 단행하지만 전반적으로 기업의 노동 수요는 강한 것으로 판단
- 한편 작년 4/4분기 성장률(전기비연율, 수정치)는 2.7%를 기록하여 속보치(2.9%) 대비 0.2%p 하락. 이번 결과는 소비지출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 하지만 같은 기간 PCE 물가의 상승률은 3.7%로 전기(3.2%) 및 예상치(3.2%) 상회하여 작년 말부터 다시 시작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는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
- 노동시장의 수요가 매우 강한 상황임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으며,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소폭 하향 조정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물가지표는 상승세 지속. 이러한 결과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 통화긴축 강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FWDBONDS의 Christopher Rupkey)
- 일부에서는 양호한 경제지표들을 고려 시 당초 우려했던 경기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기침체가 발생해도 경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 또 다른 일부에서는 PCE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크게 새로운 것은 없고, 최근의 물가 추이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Citigroup의 Veronica Clark)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재무장관, 글로벌 경제 전망은 개선. 적절한 시기에 중국과 경제 대화 재개

- 엘런 장관은 글로벌 경제 전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발언. 또한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한편 중국과의 대화 재개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중국의 러시아 제재 참여를 촉구. 또한 전세계 경제를 위해서 양국 간 대화가 중요하다고 언급

■ 미국 바이든 대통령, 차기 세계은행 총재 후보로 전 MasterCard CEO 지명

- 아제이 방가 전 MasterCard CEO가 세계은행을 이끄는 경험을 갖추었고, 기후변화 대응 등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

■ 미국 은행감독당국, 암호화폐 관련 유동성 위험 대비를 강조

-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은행권에 암호화폐 관련 고객들의 상황을 살피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권고. 다만 이번 성명서에 암호화폐에 대한 신규 제재는 미포함

■ JPMorgan의 제이미 다이먼, 미국 경기는 연착륙 가능성 있지만 많은 난관 존재

- 제이미 다이먼 CEO는 미국은 양호한 소비지출 여력 및 노동시장 등을 고려 시 연착륙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다만 연준의 통화긴축, 러-우 전쟁, 에너지 가격 급등 가능성, 중국과의 갈등 등은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

■ 유로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확정치), 전월비 하락.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속

- 1월 소비자물가의 연간 상승률은 전월비 하락(9.2%→8.6%). 이번 결과로 인플레이션 정점이 지났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 최근의 양호한 경기 여건 등을 고려 시 ECB의 통화긴축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 한편 근원 소비자물가의 연간 상승률은 소폭 상승(5.2%→5.3%)

■ 중국 시진핑 주석, 차기 인민은행 총재로 측근 인사 검토. 금융통제 지속 의도

- 주요 언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차기 인민은행 총재로 중신그룹(Citic Group) 주 허신 회장을 고려 중. 주 허신 회장은 시진핑 주석의 측근으로 시장에서는 당국의 강력한 금융부문 통제를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 일본은행 총재,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시장에서는 차기 총재의 정책 방향에 관심

- 구로다 총재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금년 중반에 목표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 다만 시장의 관심은 우에다 차기 총재 지명자에 집중. 우에다 지명자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혀 통화정책 정상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호를 발신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2/24 현지시각 기준)

- 연준 제퍼슨 이사 및 일본은행 우에다 차기 총재 지명자 강연
- 미국 1월 PCE 물가, 2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및 5년 소비자 기대인플레이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금융시장, 변동성 관련 해외 요인도 주목할 필요 - Financial Times

(US investors need to keep a much closer eye on everywhere else)

- 연준은 작년부터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 금리인상과 양적긴축을 시행.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최근 금융여건은 오히려 완화되는 모습. 이는 중국 당국의 유동성 공급 확대, 일본은행의 수익률곡선제어(YCC) 등에 기인. 이들에 의한 유동성 공급 규모는 1조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1월 미국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을 소지(Citi)
- 그러나 인민은행은 부동산 경기 과열 방지를 위해 강력한 유동성 공급 지속에는 신중할 가능성. 차기 일본은행 총재는 YCC의 중단 관련 명확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 투자자들은 미국 국내 상황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통화당국의 움직임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

■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 연준의 통화정책에만 의존해서는 곤란 - Financial Times

(The Fed alone cannot bring inflation down)

- 미국 인플레이션 대응을 주도하는 연준은 금리인상으로 수요를 줄일 수는 있어도 공급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 연준의 금리 변화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력도 아직까지는 적은 편. 이는 축적된 저축으로 차입비용 상승 상쇄가 가능했기 때문
- 최근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제어 관련 중요한 요인은 공급확대 여부이며 이는 노동공급 확대와 관련. 노동공급 증가는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임금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연준은 이와 관련하여 권한이 전무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미국 정부는 비축유 방출을 통해 유가 안정을 유도. 이를 고려한다면, 인플레이션 대책을 마련할 경우 수요 관리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공급 관련 정책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

■ 신흥국, 달러화 강세 속에 대규모 부채로 채무불이행 위험 증대 - Financial Times

(Developing countries' debts mount as pandemic and strong dollar hit finances)

- IIF에 따르면, 중 저소득 30개국의 총부채 규모가 작년말 기준 98조달러로 팬데믹 발생 직전인 '19년 75조에서 크게 증가. 이 중 상당 부분이 미국 달러화 표시 부채이며, 그 동안의 달러화 강세로 부채 상환 비용이 증가
- 중 저소득 30개국 중에서 파키스탄과 이집트의 국가부도 위험이 가장 높은 편. '22년 중에는 스리랑카와 가나가 외채 상황에 실패

■ **베트남 경제, 부동산 관련 부채 문제로 리스크 증가 - 블룸버그**

(Vietnam Property Debt Crisis Deepens as Major Developer Delays Bond Payment)

- 베트남 2위 부동산 개발업체 Novaland가 2/12일이 만기였던 4200만달러 규모 채권에 대해 만기연장 또는 부동산 현물로의 상환을 요청. 최근 부동산 시장 내의 자금경색 등으로 부동산 기업들이 채권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만기연장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
- 올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만기에 직면한 부동산 기업들이 힘든 상황에 직면한다면 이는 은행 및 경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 S&P는 이러한 상황이 시작에 불과하며 만기연장 및 채무조정 요청 등이 향후 더욱 늘어나면서 건설업 불안은 여타 산업으로까지 전염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

■ **미국의 부채상한 조정, 향후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 - 블룸버그**

(Today's Debt Ceiling Is Tomorrow's Dreaded Debt Bomb)

■ **최근 미국 주가 하락,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등으로 지속될 소지 - Financial Times**

(We're not nearly there y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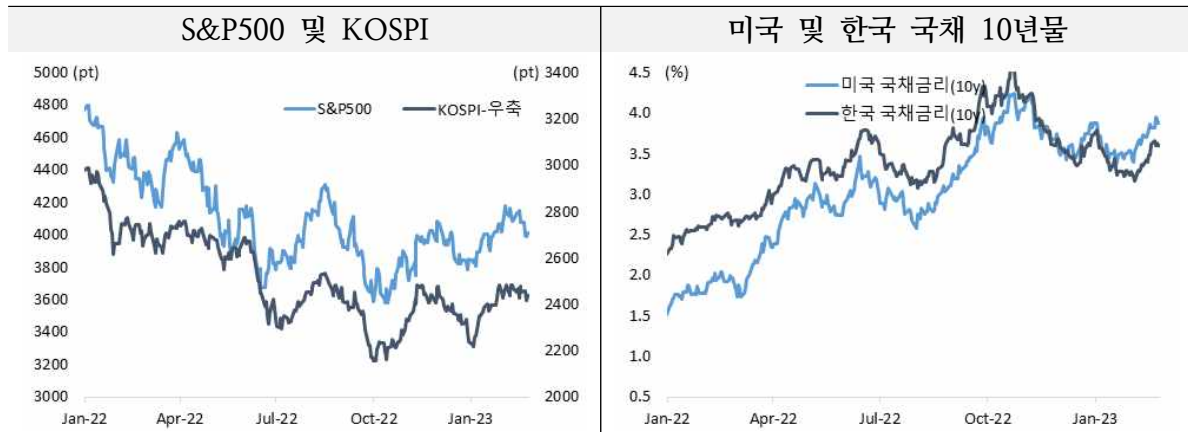
■ **유럽의 러시아 석유 관련 제재, 공급 안정 및 러시아 수익 감소 유도에 효과 - WSI**

(Russian Oil Is Still Flowing, and That Is What the West Wants)

■ **서방의 러시아 동결자산, 우크라이나 방위·재건 비용으로 사용할 필요 - Financial Times**

(We must keep fighting Russia with banks as well as tank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